

온라인 창간호

언론정보기술

한국언론전산인협회 KOrea MEdia TEchnology Council <http://www.kometec.co.kr>



협회 소식
운영진 소개
IPTC G2 Standards
eMedia Track 그리드 컴퓨팅
회원사 탐방 / 동아닷컴
읽을 만한 책
회원 명단



인사 말씀

정보와 애환을 나누는 웹진이 되겠습니다.

한국언론전산인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 코메텍 웹진 <언론정보기술>을 창간합니다.

한국언론전산인협회는 발족한지 한해 밖에 되지 않았지만 각종 기술세미나를 비롯해 언론전산인들의 정보 교류와 협력의 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회원 여러분들의 아낌 없는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런 성원에 힘입어 회원간의 교류의 장을 확대하고자 웹진 <언론정보기술>을 창간합니다.

회원여러분 !

별써 겨울입니다. 얼어붙은 경제여건이 우리를 더욱 움추려 들게 합니다. 언론사 대내외 여건도 그리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 평범해 보이는 진리이지만 “위기는 곧 기회” 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쪼록 마음을 강건히 다잡고 더 큰 발전을 위해 노력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미디어 산업은 우리 전산기술인들의 창조적인 역할을 매우 필요로 합니다. 기술자적인 사고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부담스럽고 익숙치 않겠지만 생산된 뉴스 정보를 다각적으로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다양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을 통한 수익원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내년에는 언론사 기술인 협의체로는 규모가 가장 크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IPTC 총회가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IPTC는 국내 표준으로 추진되고 있는 NewsML을 비롯해 많은 뉴스교환 표준을 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춰 제정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서울 총회를 계기로 우리 기술인들이 이러한 표준화 작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통해 회원여러분들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회원여러분 !

우리는 지금 참여와 공유, 개방을 추구하는 웹 2.0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창간되는 웹진 <언론정보기술>은 이런 시대정신을 반영, 여러분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교류의 장으로 발전시켜야 나가야 합니다. 회원들간 애환을 나누고 지식을 나누고 정보를 나누는 웹진이 되겠습니다.

좋은 독자는 좋은 책을 만든다고 합니다. 회원 한 분 한 분의 참여로 언론단체 최고의 웹진이 되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장 신우일





협회 소식

지난 11월 20, 21일 이틀에 걸쳐 대전에서 세미나를 겸한 총회를 했다. 이번 세미나는 올 들어 세 번째로 협회 회원 등 6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끝났다.

20일 열린 세미나는 △오픈 뉴스엠엘(이명규, 세계일보), △클라우드 컴퓨팅 네트워크(차석기, 클루넷), △서버통합관리 솔루션(심재철, 시큐릭스), △뉴스엠엘 G2 표준 소개(정태성, 연합뉴스), △UCC(최재표, 문화부 뉴미디어산업과) 등 총 5개 섹션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에 없이 많은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갔다. 특히 클라우드 컴퓨팅 네트워크 세션은 IT 기술 트렌드 한 가운데 있는 주제라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았다.



21일 오전에 열린 협회 총회는 △회장 임기 만료에 따른 회장 선출, △조직 활성화에 필요한 직책이사 선임과 회비 납부 건, △웹진 등 출판물 발행을 위한 편집위원회 구성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루었다. 회장은 신우일(연합뉴스) 전 회장이 연임하기로 했고, 문병우(매일경제) 부회장이 기획이사에, 이명규(세계일보) 부회장이 연구이사에, 김덕수(경기일보) 부회장이 감사에 선임되었다.

회비 납부는 좀더 시간을 갖고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에는 정상택(한겨레) 부회장, 편집위원으로 황남연(디지털조선) 부회장, 조동시(언론재단) 부장, 이준영(아그파코리아) 차장이 선임되었다. 또 내년에는 새로 선임된 직책이사를 중심으로 우선 조직을 활성화해 소통을 다지고, 협회를 사단법인으로 해 협회 틀과 체계를 잡아 가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운영진 소개

2009년 협회 운영과 살림을 꾸려 나갈 임원, 운영진을 소개합니다.

① 생년월일 ② 회사 / 직책 ③ 취미 ④ 좌우명 ⑤ 자기소개 ⑥ 협회나 웹진에 하고 싶은 이야기

신우일_회장

- ① 1952년 7월 25일 (음력)
- ② 연합뉴스 정보통신국 / 국장
- ⑤ 1981년 연합뉴스 기술부 근무
1994~1995년 영국 Strathclyde Univ. 연수
1998년 연합뉴스 전산부장
2003년 정보통신국장
2007년 한국언론전산인협회의 회장



김일홍_고문

- ① 1955년 8월 6일 (음력)
- ② 동아닷컴 / 이사
- ③ 등산, 골프
- ④ 거짓말하지 말자
- ⑤ 1979년 동아일보 입사. 1988년 국내 최초 초고속 신문 전송 시스템 구축. CTS 기획, 개발, 운영. 동아미디어그룹 CIO
- ⑥ 회원들에게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선도하는 언론 기술인의 열정을 결집해 주는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현장에서 부딪히는 업무뿐만 아니라 미디어 관련 선진 기술에 대한 상호 정보 교환과 공유의 장이 되고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허브 역할을 기대합니다.



김덕수_감사

- ① 1961년 7월 30일
- ② 경기일보 편집국 전산제작부 / 부장
- ③ 골프, 테니스
- ④ 시간의 걸음에는 세가지가 있다.
미래는 주저하며 다가오고
현재는 화살처럼 날아가고
과거는 영원히 정지하고 있다. -F.살러



운영진 소개

2009년 협회 운영과 살림을 꾸려 나갈 임원, 운영진을 소개합니다.

- ① 생년월일 ② 회사 / 직책 ③ 취미 ④ 좌우명 ⑤ 자기소개 ⑥ 협회나 웹진에 하고 싶은 이야기



문병우_기획이사

- ① 1960년 2월 16일
- ② 매일경제신문 전산실 / 부장
- ③ 요리, 고기·찌개·각종 탕류 전문
- ④ 이끌고, 따르고, 포기하고, 즐기자
- ⑤ 1984년 10월 KCC 전산실 입사
1989년 11월 진흥정보 시스템 설립 및 개발 실장
1992년 5월 이든데이터 시스템 설립
1997년 8월 (주)뉴비지니스시스템 사업부장 입사
1999년 3월 은혜정보시스템 설립
2000년 10월 매일경제신문사 전산실 부장 입사
- 사랑하는 아내와 예쁜 두 딸을 둔 평범한 가장
- ⑥ 지식을 서로 공유합니다. 언론전산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집시다. 협회일도 열심히 합니다.

김정원_부회장

- ① 1964년 1월 1일 (양력)
 - ② 경향신문사 전산제작국 전산운영팀 / 부장
 - ③ 축구, 여행
 - ④ 지혜로운 사람이 되자, 이름처럼 살자
 - ⑤ 1996년 경향신문 입사
2007년 신문제작시스템 구축
2008년 통합 데이터베이스와 CMS 구축(마무리 중)
- 맡은 바 업무는 내가 경향신문을 대표한다는 사명감으로 일한다. 업무 외에 제일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축구다. 개인운동보다는 단체경기를 좋아한다. 특히 축구에 대한 열정과 참여는 누구도 말할 수가 없다. 2002년 사내 축구동호회를 만들었다. 주말에는 만사 제쳐 놓고 운동장에서 땀을 흘린다. 별로 잘하지 못하면서 공격수 한다~. 그래도 건강을 지킬 수 있어 좋다. 동호회원의 열정적인 참여를 독려해 지금은 재경언론사 중에서는 경향신문이 가장 활동적이고 경기력 또한 으뜸이다.
- ⑥ 한국언론전산인협회 전체 인원은 상당할 거라 생각된다. 전체적인 전산인 참여를 위해 1년에 한 번 정도 주말에, 세미나와 체육대회를 함께 여는 것처럼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했으면 한다.



운영진 소개

2009년 협회 운영과 살림을 꾸려 나갈 임원, 운영진을 소개합니다.

- ① 생년월일 ② 회사 / 직책 ③ 취미 ④ 좌우명 ⑤ 자기소개 ⑥ 협회나 웹진에 하고 싶은 이야기

조동시_언론재단 팀장 / 편집위원

- ① 1962년 12월 27일
- ② 한국언론재단 정보화사업팀·뉴스저작권사업단 / 팀장
- ③ 독서
- ④ 부드럽고 느리게 살자
- ⑤ 시골서 고교 졸업한 잡학에 관심이 많은 애타인(愛他人)이 되고 싶은 사람. 재단에서는 연구와 출판 부문에서 오래 근무 함.
- ⑥ 최고의 언론단체가 됩시다. 조직은 돈, 선배들이 후배 술사준다 생각하고 발전기금 모금 어때요? 가벼운 웹진을 자주 내 회원들이 좀더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듭시다.



정순한_사무국장

- ① 1970년 11월 6일
- ② CBSI IT실 / 실장
- ③ 가족과 함께 여행하기
- ④ 항상 최고의 선택과 최선의 노력으로 성실하자
- ⑤ 작지만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볼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세상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그 순간까지 노력하려 합니다
- ⑥ 모두가 도움을 받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협회. 열린 협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운영진 소개

2009년 협회 운영과 살림을 꾸려 나갈 임원, 운영진을 소개합니다.

① 생년월일 ② 회사 / 직책 ③ 취미 ④ 좌우명 ⑤ 자기소개 ⑥ 협회나 웹진에 하고 싶은 이야기



김태준_사무차장

- ① 1971년 8월 21일
- ② 경향신문사 전산제작국 전산운영팀 / 차장
- ③ 스포츠·영화·음악 감상
- ④ 후회없이 살자
- ⑤ 호기심이 무척 많아서 알고 싶은 것도 궁금한 것도 너무 많습니다. 낙천적인 이상주의자가 되어 세상을 바꿔보고 싶습니다.
- ⑥ 음지에서 일하며 양지를 지향하고 계시는 언론전산인들에게 긍지와 자부심, 그리고 꿈과 희망을 주시길 바랍니다.

정상택_편집위원장

- ① 1965년 9월 7일 (음력)
- ② 한겨레신문사 정보관리부 / 부장
- ③ 등산, 사진
- ④ 보보시도량
- ⑤ 관악산 밑에서, 마을문고 다니는 아내와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가는 딸 이렇게 셋이서 평범하게 삽니다. 소프트 웨어 개발 분야에서 20년 넘게 일하고 있습니다.
- ⑥ 힘내세요, 핫팅!



그 외 세계일보의 이명규 연구이사, 문화체육관광부 뉴미디어산업과 최재표 주무관, 연합뉴스 정태성 부장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데 사정이 있어 다음에 소개해 드려야겠습니다.

신기술 소개

IPTC G2 Standards

iptc.com



지난 11월 IPTC(International Press Technology Council, 국제언론통신협의회)가 G2 표준인 NewsML-G2와 EventsML-G2의 새로운 버전을 발표했다. 새롭게 바뀐 G2 표준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일반적인 특징

IPTC G2 표준은 뉴스 관리에 필요한 명세 세트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XML 컴포넌트를 모듈러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현재는 NewsML-G2와 EventsML-G2가 발표된 상태고 다른 표준들이 뒤를 이어 발표될 예정이다. G2 표준의 일반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모든 유형의 뉴스 콘텐츠를 전달할 수 있는 데이터 구조를 가졌다(News Item).
- 구조화된 방법으로 뉴스 아이টে임을 패키징 할 수 있는 데이터 구조를 가졌다(Package Item).
- 뉴스가 영구적으로 기억하고 보도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 구조가 있다(Concept Item).
- 단일 포장으로 대량의 콘셉트를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 구조를 가졌다(Knowledge Item).
- 다양한 아이টে임을 전송할 수 있는 포장이 가능하다(News Message).

G2 표준 패밀리 간에는 G2 표준 컴포넌트를 서로 공유할 수 있다. G2 표준은 IPTC의 뉴스 아키텍처로 뉴스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라 할 수 있으며, 위에서 언급한 특성들은 모두 이 모듈러 프레임워크 안에서 개발된 것이다. 이 프레임워크를 사용함으로써 프로그래머는 XML 표준이나 기타 뉴스 관리에 필요한 배경 지식을 배우는 드는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고객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있을 것이다. G2 표준을 적용하는 웹사이트, 신문사, 텔레비전 방송국 등은 뉴스 관리 측면에서 상당한 비용대비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NewsML-G2

뉴스엔엘은 특정 미디어에 얽매이지 않는 뉴스 교환 포맷이다. 뉴스를 교환한다는 뜻은 뉴스의 내용뿐만 아니라 뉴스의 내용을 설명하는 메타데이터, 뉴스 관리에 필요한 정보, 뉴스 패키징에 관한 정보, 전송 기술 그 자체를 함께 다룬다는 뜻

이다. IPTC는 뉴스를 두 가지 중요한 구성 요소로 구분한다. 하나는 뉴스 콘텐츠이고 하나는 정보에 관한 가치이다.

뉴스 콘텐츠는 발생한 사건, 보도 등에 대한 휘발성 정보다. 이런 정보는 상이한 저널리즘 스타일과 기사, 사진, 그래픽, 오디오나 비디오 등 다양한 매체 유형으로 존재한다. NewsML-G2에서는 이런 종류의 뉴스 콘텐츠를 단일한 데이터 구조로 다루기 위해 뉴스 아이템(News Item)을 제공한다.

뉴스는 현존하는 정보와 관련이 있다. 각각의 뉴스 아이템은 특정한 사건, 사람, 지역, 테마 등과 연관되어 있다. 이런 정보가 보도할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뉴스 콘텐츠가 기억할 만한,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함께 전달돼야 한다. NewsML-G2에서는 보도 여부의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 콘셉트 아이템(Concept Item)을 단일 데이터 구조로 제공한다.

뉴스 아이템과 콘셉트 아이템은 개별적으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둘을 한 데 묶어 팩키지 아이템(Package Item), 지식 아이템(Knowledge Item)으로 전달한다. 팩키지 아이템은 아이템들을 구조화된 테이블 형태의 세트로 전달하며 지식 아이템은 마치 백과사전처럼 수많은 콘셉트의 컨테이너다.

NewsML-G2에는 단순함과 호환성에 중점을 둔 CCL(Core Conformance Level) 모델과 이를 확장한 PCL(Power Conformance Level) 모델이 있다.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선택 사용하면 된다.

EventsML-G2

EventsML-G2는 구조화된 이벤트 정보를 수집하고 배포하는데 유용한 솔루션이다. 다양한 유형의 이벤트 타입을 제공하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고, 유연성이 뛰어나다. 또 확장 가능한 데이터 구조이기 때문에 이벤트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뉴스공급자가 추가할 수도 있다.

G2 표준 패밀리라 다른 표준에 있는 컴포넌트와 공유할 수 있다. 이벤트에 관한 사실과 정보를 일반 문자, 통제용어에 있는 코드로 표현할 수 있고, 매우 유연한 날짜 데이터 타입을 지원한다. 지원하는 교환 포맷은 다음과 같다.

- 이벤트에 관한 일반 정보
- 통제용어에 있는 사용값, 콘셉트 관련 정보
- 구조적으로 뉴스를 패키징할 수 있는 유연한 매거니즘
- 인터넷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한 아이템 전송
- 통제용어에 있는 스키마, 코드 사용
- 다른 이벤트, 일반 뉴스 아이템에 있는 중요한 이벤트의 지속적인 정보

신기술 소개

eMT's **그리드 컴퓨팅**
emt.com



가상화·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관심이 높다. 지난 10월 중순엔 가트너가 <가트너 심포지움 & IT 엑스포>에서 가상화·클라우드 컴퓨팅을 2009년 가장 유망한 IT 전략기술 1, 2위로 꼽았다. 이와 관련해 옥스포드대 물리학과 제프 쉥 교수가 보내 온 원고를 원문과 함께 소개한다. 제프 쉥 교수는 이미디어트랙(eMediaTrack) CTO이며 CERN의 입자가속기 데이터 연산처리 부문에 참여하고 있는 물리학자로 그리드 컴퓨팅에 관련한 여러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다.

Information Technology: a Green Problem, or a Green Solution?

Jeff Tseng, Department of Physics, University of Oxford

A computer hums gently on the desk, barely noticeable among the office chatter, clinking coffee cups, and squeaking chairs. In the space of a few decades, computers have become such an indispensable part of the office environment that for some, imagining an office without them would be like imagining an office without desks.

If we walk down the hall, however, we find that the hum turns into a roar: this is the corporate data center, filled with rack upon rack of servers supporting the IT infrastructure we enjoy without much noticing – servers which inform and entertain our customers, conduct our financial transactions, underpin our global commerce and services, and even solve problems for us to make our work easier or more efficient. If we wander into this room, we might be excused for thinking we have walked onto an Alaskan airport tarmac in winter: power is in evidence everywhere, aggressively pumped into all those racks of faceless computers, and yet the whole room is a refrigerator, just as aggressively pumping out the resulting heat.

The voracious appetite of the corporate data center for power and space is becoming more and more noticeable on national and global scales. A recent report by the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notes that electricity consumption by data

centers has doubled between 2000 and 2006 to 61 billion kilowatt-hours (kWh), or 1.5% of total US electricity consumption – an amount exceeding that of the nation’s color televisions.¹ Demand for IT infrastructure, however, remains very strong, with double-digit growth expected year-on-year.

The IT industry, it must be said, recognized these challenges some years ago, and already some healthy trends are in place. Low-power processors, once considered a niche product, are now in mainstream computers. Server virtualization has become a very popular solution for consolidating services on a single machine. After some embarrassing mishaps, data center designers are increasingly careful to take power and heat into account. Oddly, however, some data center operators proudly display their power distribution panels and air conditioning units on their websites as if they were fancy sports cars.²

The EPA report notes that there are potential environmental benefits to these data centers in that they may lead to efficiency gains elsewhere. For instance, a warehouse might change the order in which pallets are shelved or retrieved in order to reduce the overall petrol usage and hence carbon footprint of its forklifts. Sufficiently complex optimization problems, however, require considerable computing power. Ironically, it is generally not clear, for a given problem, that the environmental saving is greater than the environmental cost of the calculation which obtained it, especially when one considers all the costs of buying, installing, power, and cooling the computers – not to mention actually doing the “green” calculation.

Existing data centers providing utility (or “cloud”) computing services could provide the IT resources for such calculations. Indeed, for some tasks, only a data center solution will suffice. However, in a real sense, this solution simply moves the problem elsewhere. These services must stock and maintain their data centers just like anyone else, and in order to provide a reliable level service, they must buy extra capacity like everyone else – the average data center generally uses only a third of its computing capacity – and expend half of their energy to power and cool them. On the other hand, if we are looking for the largest resource in the world, with the greatest capacity to absorb wildly fluctuating demands without incurring huge additional

¹ *EPA Report to Congress on Server and Data Center Efficiency* (Response to Public Law 104-431), 2 August 2007.

² Names will not be mentioned.

costs, then we must look elsewhere. We turn, instead, to those ubiquitous computers, humming away almost unnoticed on our desks, looking more like furniture than part of the world's biggest, untapped computing resource.

There are some one or two billion computers in the world, many of which are considered essential to individual productivity but typically use less than 5% of their capacity even when “busy” – writing an e-mail, for instance, or editing an article. The spare capacity of these computers is such they could make up a supercomputer over 100 times more powerful than the current 500 most powerful supercomputers combined;³ at present, however, this capacity simply goes the waste, amounting to some £100 billion (counting only capital cost) thrown away every year. The cost of tapping into this resource, however, is determined largely by the marginal increase in electricity usage; the need for special powering and cooling infrastructure is virtually eliminated, since the computers are not confined to small spaces, as they are in data centers. Using these computers could therefore change dramatically the cost-benefit analysis for performing a “green” calculation.

There are, of course, considerable technical challenges to harnessing so many computers. Fortunately, we are now in a position to make important steps on the way using a technology called “Nereus”, which was developed in Oxford University's high-energy physics research group for just this purpose.⁴ In order to visualize the scale of the problem which inspired Nereus, imagine a stack of CD's forty kilometres high – three times higher than a commercial airliner flies. This is the amount of data we expect to record and process from the Large Hadron Collider, now beginning operations at the European Center for Nuclear Physics Research (CERN).

Nereus allows individual computers to join a worldwide network of computers willing to participate in large-scale computations and network-based services. Joining can be as easy as clicking on a link in a web page; the link downloads onto the host computer a Java applet which contains the foreign code. The Java applet's security system assures the host computer's user of its safety, and that the unfamiliar, foreign code will not be able to read his files or scan his passwords; Java applets are the best-established

³ Top500.org, <http://www.top500.org/>, 2008; Nolan J Taylor, “Public grid computing participation: an exploratory study of determinants”, *Inf. Manage.*, 44(1):12-21, 2007; David Anderson, “BOINC: a system for public-resource computing and storage”, *Fifth IEEE/ACM Intl Workshop on Grid Computing (GRID'04)*, 2004.

⁴ Technical information can be found at <http://www-nereus.physics.ox.ac.uk/>.

security context on the World Wide Web, having been used to run safely unfamiliar code from unfamiliar websites for over a decade. Moreover, the individual computers can be further protected by a corporate firewall and still fully participate in a Nereus network.

The manner of joining individual computers to a Nereus network allows corporate system administrators to circumscribe the activity of the company's Nereus nodes, including the ability to restrict overall network bandwidth consumption as well as the sites from which foreign code can be downloaded. Perhaps more interesting is that Nereus can facilitate a *quid pro quo* arrangement between companies: one company could allow another to use its machines for agreed purposes at times of peak demand if the other returns the favour. In this way, both companies avoid the capital expense of expanding centralized data centers and their associated infrastructure, instead getting more use, at marginal cost, out of computers already bought for other purposes.

Nereus therefore has the potential to pull the IT industry out of a rather ironic position: the industry recognized its energy challenges well before they showed up on government radars, and indeed, for many years it successfully promoted the use of computers to decrease paper use in offices and increase the efficiency of everyday machines such as automobiles. It is an odd and uncomfortable situation for the industry itself to be fingered as an environmental problem. By overcoming the challenges of safely mustering these existing computers and looking beyond the corporate data center to tap into the world's largest – and heretofore mostly unused – resource, Nereus can change all that again. IT should once again be part of the “green” revolution. Nereus brings us closer to that reality.

정보 기술 : 환경 파괴인가? 아니면 환경보호 해결책인가?

Jeff Tseng, Department of Physics, University of Oxford (번역, 장덕 / 이미 디어트랙 수석연구원)

딸깍거리는 커피잔 소리, 소근거리는 목소리, 사무실 의자들이 삐걱거리는 소리. 사무실의 이런 소음에 비하면 책상 위 컴퓨터가 내는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지난 몇 십년 동안 컴퓨터는 사무실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장비가 돼 이제 컴퓨터 없는 사무실은 책상 없는 사무실을 상상하는 것 만큼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복도를 내려가면 조용한 컴퓨터 소음은 굉음으로 바뀐다. 이 소리는 우리의 여러 업무 - 회사 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일들, 예를 들면 거래처 관리, 송금, 결제 등의 거래, 세계 경제 흐름 속에서 토대를 마련하는 것 등 매일 일어나는 모든 업무-를 더 쉽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돕는, 서버 랙이 뽁뽁히 들어 찬 데이터센터가 만들어 내는 소리다. 별 생각없이 데이터센터 안으로 들어간다면 순간적으로 마치 겨울에 알래스카 공항의 활주로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을 하게 된다. 여기서 정체불명의 컴퓨터 랙에 엄청난 전력을 퍼붓고 있고 여기서 나오는 열기를 식히려고 말 그대로 방 전체가 냉동실이다.

결신들린 듯 전력과 공간을 집어삼키는 데이터센터는 각 국가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다. 최근 미국 환경보호원(EPA,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의 보고서를 보면, 데이터센터가 쓰는 전기량은 2000~2006년 사이 두 배로 뛰었다고 하는데 미국 전역 전기소비량의 1.5%가 넘는 610억 킬로와트라고 한다. 이는 미국 전역에서 동시에 TV를 시청할 때 소비하는 총전기량을 초과하는 것이다.

이렇다 하더라도 IT산업의 인프라는 여전히 필요하고 매년 두 자릿수 이상으로 성장할 것이다. 다행스런 사실은 IT업계는 이미 수년 전부터 이러한 상황에 부딪칠 것을 예상하였고 효과적인 대책을 이미 마련해 놓았다는 점이다. 얼마전 까지만 해도 특별한 제품으로 취급하던 저전력프로세서가 이미 보편화되었고, 한 대의 컴퓨터를 여러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버 가상화 기술도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 혼란스런 사건을 겪은 후 데이터센터를 설계하는 엔지니어들은 전력과 발열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물론, 보유한 전력 분배 패널과 냉각장치들을 멋진 스포츠카를 자랑하듯 자사의 웹사이트에 공개하는 곳도 여전히 볼 수 있지만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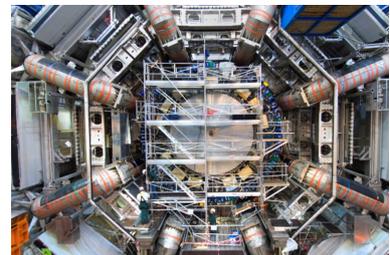
EPA보고서는 데이터센터가 여러 부문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면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물류센터의 물건을 운반하는 동선이나 순서를 재편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기름 사용량을 줄인다면 탄산가스의 배출량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문제들은 여전히 대규모의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며 소규모 컴퓨터 자원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아이러니지만 현재의 환경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일련의 조치가, 이 조치를 실행함으로써 발생하는 환경파괴에 비해 더 효과적이지도 확실하지 않다. 이런 “녹색(green)” 컴퓨팅 실현을 위한 컴퓨터 구입과 설치, 냉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기존 데이터센터에서 이러한 연산처리에 사용할 수 있는 IT 자원을 유틸리티(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로 제공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오직 데이터센터의 솔루션 외에는 방법이 없는 때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결방식은 단지 문제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데 불과한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서비스는 일정 수량 이상의 서버를 운영해야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일반적인 경우와 똑같이 자원을 추가 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보유 자원의 1/3 정도를 데이터센터에서 사용하며 전체 전기량의 반 정도를 시스템 냉각 등 시스템의 운용에 쓰고 있다. 달리 말하자면 추가 비용 없이 전세계에 존재하는 컴퓨터의 유휴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필요한 자원과 컴퓨팅 파워를 얻을 수 있다면, 웅장한 초대형 컴퓨터에서,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구석에 놓여 있는 가구처럼 책상 위에서 조용히 돌아가는 컴퓨터들의 자원에 시선을 돌려야 할 것이다.

현재 지구상에는 약 10~20억 대의 컴퓨터가 있다. 대부분은 바쁘게 돌아갈 때에도 전체 자원의 5% 정도만을 사용한다. 이나마 우리가 이메일, 문서 편집 등 상당히 바쁘게 쓰고 있다고 가정한 시점에서 본 소모량이다. 만일 사용하지 않는 나머지 자원을 한데 모을 수 있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방대한 규모의 컴퓨터를 구성할 수 있다. 현존하는 슈퍼컴퓨터 1순위부터 500번째까지 합한 것의 100배 정도 더 큰 규모의 슈퍼컴퓨터를 만들 수 있다. 우리는 이런 슈퍼컴퓨터의 자원을 쓰지 않고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장비 가격으로 계산하면, 연 2백 조원 정도가 되는데 이 금액을 그냥 버리는 셈이다. 이 방대한 자원을 사용하는 데는 소액의 전기요금 외에는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 또한 중요하다. 모든 자원이 특정한 한 장소에 모여 있는 데이터센터와 달리 별도의 전력이나 냉각설비가 필요하지도 않고 별도의 인프라를 새로 추가할 필요도 없다. 이런 방식으로 곳곳에 산재한 자원을 한데 모아 사용할 수 있다면 ‘그린컴퓨팅’의 비용 대비 편익을 극적으로 바꿀 수 있다.

물론 곳곳에 산재한 수많은 컴퓨터들을 연결하는 것은 상당한 기술적 도전이다. 그러나 우리는 운 좋게도, 옥스포드대학의 고에너지물리학 리서치그룹에서 만든 “네레우스(Nereus)”를 사용하여 위 이론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에 와 있다. 네



레우스는 가동을 시작한 CERN¹의 입자가속기가 생성하는 방대한 데이터 연산 및 기록을 처리하기 위해 개발한 것이다. 입자가속기에서 처리해야 할 데이터는 그야말로 엄청난 분량인데, 데이터가 들어있는 CD를 수직으로 쌓아 놓는다면 40킬로미터의 높이가 된다. 이는 현재 민간 항공기 제한고도의 세 배가 넘는 것이다.



너레우스를 사용하면 전세계를 엮는 초대형 컴퓨팅 및 네트워크 기반 서비스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어떤 컴퓨터라도 손 쉽게 연결할 수 있다. 연결 방법은 매우 간편해 웹페이지에 있는 링크를 한 번 클릭하는 것이 다다. 링크를 클릭하면 호스트 서버에 있는 이종코드가 포함된 자바애플릿을 내려받아 설치하는 방식이다. 자바애플릿의 보안시스템은 호스트 컴퓨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며 이종코드는 호스트 컴퓨터의 패스워드나 개인적인 파일을 읽을 수 없도록 한다. 자바애플릿은 월드와이드 웹에서 가장 뛰어난 보안 방식이고 이미 십 년에 걸쳐 증명된 바다. 더욱이 개인의 컴퓨터는 코퍼레이트 방화벽에 의해 한 번 더 보호되기 때문에 너레우스 네트워크 연결시 보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다.

각 컴퓨터를 너레우스 네트워크에 가담시킴으로써 기업의 시스템 관리자는 전체 네트워크 사용량, 이종코드 허용 사이트 등 너레우스 노드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더 흥미로운 것은 너레우스를 통해 회사 대 회사 간 재화를 교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회사가 다른 회사에게 특정 시간 동안 컴퓨팅 자원을 임대해 주고 그 댓가를 받을 수 있다. 회사들은 이미 보유한 컴퓨터를 활용함으로써 최소한의 추가비용으로 데이터센터 및 관련 인프라스트럭처를 증설할 수 있다.

IT는 어느 나라 정부보다 앞서 에너지 문제를 예견하였고 사무실의 종이 사용을 줄이는데 기여하였다. 또 자동차의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등 여러 분야에서 크게 기여하였지만 지금은 IT산업 자체가 환경문제의 당사자로 지목된 곤란한 형편에 처해 있다. 너레우스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IT산업을 끌어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산재한 컴퓨터들을 한데 모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보안 문제를 극복함으로써 데이터센터를 넘어 세계에서 가장 큰 컴퓨터 - 지금까지 대부분 사용하지 않던 자원 -, 너레우스는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IT산업은 다시 한 번 더 “녹색(green)” 혁명의 주요 분야가 될 것이다. 너레우스로 이러한 현실에 한 발 더 다가가는 것이다.

1. CERN, the European Center for Nuclear Physics Research, 유럽 원자핵 공동 연구소



협회 고문이신 동아닷컴 김일홍 이사를 CBSi 정순한 실장과 광화문 근처 중식당에서 함께 뵈었다. 바쁘실텐데도 시간을 내 주셔서 많은 얘기들을 나누었다. 나눈 이야기를 정리한다.

- 많이 바쁘시지요? 근황은 어떠신가요?

= 지난 4월에 동아닷컴으로 출근하기 시작했다. 신문제작 데이터베이스 통합 작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Total CMS 구축을 구상 중이다. 일종의 데이터센터로 보면 된다. 모든 콘텐츠를 이 CMS에 집어 넣어 모든 미디어와 디지털디바이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한다. 말하자면, 원 소스 멀티 유즈(One Source Multi Use) 시스템을 구현하려고 한다.

또 뉴스뱅크의 실무위원장을 맡고 있다. 뉴스뱅크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수익 방안을 구상 중이다. 이와 관련된 의제로 뉴스 유통구조 개선이 있다. 뉴스 유통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 포털에 콘텐츠를 공급하고 콘텐츠 사용료를 받는 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 뉴스뱅크는 뉴스 생산자의 입장과 위상을 고려하면서 포털과 상생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찾고자 한다. 신문협회를 비롯한 여러 언론사에서 미디어 시장 상황의 현실을 바로 인식하고 함께 대처해야 한다고 본다.

- 국내 미디어 시장이 어려운데 어떻게 보시는지?

= 앞으로 미디어 산업도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승자 독식 시대가 될 듯 하다. 개인과 기업 모두 향후 4~5년을 준비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보면, TV를 비롯해 많

은 미디어가 오락(엔터테인먼트)에 집중하고 있다. 미디어 기업이 해야 할 본분을 잊고 있는 것 같다.

신문기자들의 재교육도 문제다. 다양한 교육을 통해 지식이나 전문성을 높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기사를 생산하는데 주력한 탓이다. 심층 분석 기사를 만들어 내는 기자가 드물다.

미디어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의 의식도 바뀌어야 한다. 2009년이면 1조 7천억인 오프라인 광고를 온라인 광고가 추월한다. IPTV까지 가세하면 신문광고는 더 줄어들 것이다. 여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모든 매체의 주요 매출은 광고다. 콘텐츠 자체를 이용해서 광고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은 많지 않다. 앞으로도 주요 매출은 광고에서 일어날 것이다. 때문에 광고와 결합한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광고 시장의 크기는 정해져 있으며 콘텐츠 유통을 장악하는 것이 곧 광고 시장을 장악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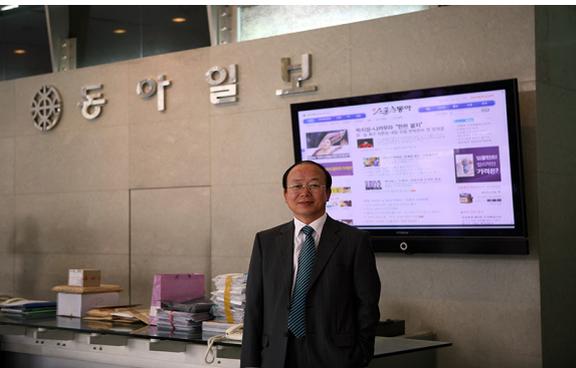
물론 신문사의 존재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하지만 광고도 그 존재의 이유 중 하나다. 왜냐하면 매출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매체의 영향력은 광고의 단가에 큰 영향을 준다. 아직 인터넷 등 전자 매체의 광고 단가는 매우 낮은 편이다.

온라인 매체의 주 수익원은 수익성 매출, 페이지뷰, 매체 영향력에 기인한다. 오프라인 매체의 주 수익원은 브랜드 영향력, 발행 부수, 수익성 매출로 이루어진다. 언론사의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서로 자기의 광고 시장을 잠식할 수도 있어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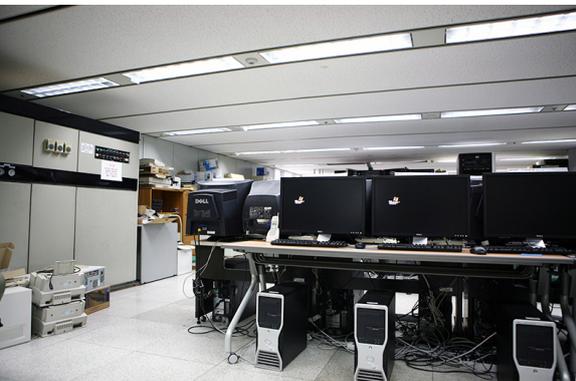
- 미디어 기업이 개선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 = IPTV나 e-Paper가 활성화 된다면 신문의 발행부수는 꽤 감소할 것이다. 아직은 이동통신사 3개사를 이길 수 있는 매체가 없다. 자본이 부족하고 매체의 영향력 역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동종 업계끼리 연합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한 목소리가 필요하다.
- CEO들이 IT에 더 많은 관심과 전문지식을 가져야 한다. IT 업무에 맞는 책임자를 선정할 수 있고 그 진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잘못하게 되면 소모적인 논의가 지속되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 또 성과도 신통치 않은 경우가 많다.

- 개인적인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취미는 어떻게 되시는지?
- = 등산을 자주 한다. 골프도 14년 정도 하고 있다.

- 주량은 어떻게 되시나요?



마중 나오신 김이사님. 동아일보 로비입니다.



동아닷컴 기계실

= 주량이 좀 줄긴 했다. 그래도 술자리 중간에 일어날 정도는 아니다. 아직 끝까지 술자리를 지킬 정도의 주량은 된다.

- 좌우명이 있으시다 들었습니다.

= '거짓말하지 말자' 다. 뻔한 거짓말을 하지 말자는 얘기다. 캔 블란 차드는 <진실한 사과를 우리를 춤추게 한다>에서 '솔직·성실하고, 진실을 말하고, 성실을 실천하라'고 얘기했다. 솔직하다는 건 남에게 진실을 얘기하는 것이고, 성실하다는 건 내가 얘기한 진실을 실천하는 것이다. 또, 도산 안창호 선생도 '꿈에서라도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다. 거짓말을 해야 하는 자리서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 때 느끼는 감정은 값진 것이다. 거짓말을 한 번 하면 이후에 스물 여섯 번의 거짓말을 더 하게 된다고 한다. (술자리서도 자주 강조하신다고^^).

- 가족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 두 명의 자녀가 있다. 큰 애는 대학교 4학년인 아들이고 작은 애는 대학교 2학년인 딸이다. 아내는 동갑내기다. 사랑스럽고 애교가 많다. 나를 잘 이해해 주고 힘의 원천이 되는 사람이다. ('힘의 원천'이란 말에서 문득 피천득 선생의 '구원의 여상'이 떠올랐다. 이 날 저녁에 피천득의 수필집 <인연>을 구해, '구원의 여상'에 책갈피를 끼워 협회 선물로 드렸다.)

- 동아일보에 언제 입사하셨는지? 기억에 남는 일화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동아일보에는 1979년 10월 15일에 입사했다. 그 당시 동아방송(DBS)에 입사했다. 입사 후 얼마 안 있어 10.26과 12.12가 일어났다. 역사의 한가운데 있었던 셈이다.

첫 번째 맡은 일은 동아방송에서 신설한 대담프로 <DBS 초대석>이었다. 신입 엔지니어로 참여했다. 김수환 추기경께서 최초로 출연하셨다. 김 추기경의 삶과 철학 등을 3일 동안 집중 인터뷰하는 프로였는데 그때 만남에서 많은 감동을 받았다. 그 인연으로 가톨릭 신자가 되었다. 이후로 김종필 전 총재, 김영삼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순으로 대담 순서가 잡혀 있었는데 김종필 전 총재의 녹화를 진행 하던 중 12.12 사태가 발생 했던 것 같다. 12월 30일, 동아방송이 폐국 됐다.

그때의 추억 한가지 얘기하겠다. 남산타워에는 TV 안테나가 주로 있었고, 라디오 방송 안테나는 동아방송 것이 유일했다. 이 곳은 일반인이 출입할 수 없는 구역이었는데 업무 인수인계 때문에 타워의 꼭대기까지 올라가 안테나를 확인해야 할 일이 생겼다. 안테나는 3단인데 2



단까지는 발판이 있었으나 3단 꼭대기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 가야만 했다. 일체의 안전장치가 없었다. 남산 타워를 올라가 보았다면 느낌이 있을 것이다. 설마했는데 막내인 내가 올라가 봐야 한단다. 중앙정보부에서 신원조회를 마치고 사다리를 오르기 시작했는데 다리가 후들거리고 오만 가지 생각이 교차했다. 그때 위안을 삼은 것이 ‘안테나를 설치한 사람도 있는데……’ 였다. 오기로 꼭대기까지 올라가 할 일을 마쳤다. 잠시 여유를 갖고 아래를 내려다 봤다. 앰버서더 호텔이 성냥갑 만 하더라. 삼일 동안 이 일을 했다.

“후배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싶다. 몸 담았던 언론 분야에서 한 획을 긋는 힘이 돼야 한다는 마음이고 후배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아직 공부한다.”

동아일보 시절의 일화도 하나 소개하겠다. 1988년에 동아일보는 광화문에 있었고 인쇄시설은 여의도에 있었다. 매일, 오토바이나 자동차로 지형¹을 여의도로 이송해야 했다. 문제도 많았고 품도 많이 들었다. 그때 구상한 것이 신문전송용

초고속 팩스였다. 신문 데이터를 압축하면 크기가 대략 20 ~ 30MB 정도 된다. KT에 요청해 T1 라인을 설치했는데 민간용으로는 처음 설치된 것이라 과금 기준이 없었다. 통신료 산정 기준을 만들고 정산하는 데만 1년이 소요됐다. 이것이 디지털로 신문 데이터를 전송한 첫 사례가 아닌가 싶다.

- 후배들에게 바람이 있으시다면?

= ‘거짓말을 하지 마라. 공부해라’ 다. 엔지니어라도 교양·인문·사회학 등 다른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 틈틈이 공연도 관람하고 책 읽기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말하자면, 숲을 볼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한다. 자기 전문 분야 외 다른 분야에서도 실력을 갖춰야 숲을 볼 수 있다.

동아닷컴

동아닷컴은 1996년 6월 10일, 동아일보 인터넷 신문 서비스를 개시했다. 같은 해 10월 1일, 동아일보 미디어 전략 전초기지로 (주)마이다스동아일보를 설립했으며, 2000년 1월 13일 동아닷컴으로 사명을 바꿨다.

이후 동아일보와 신동아, 주간동아 등 매거진 뉴스 서비스와 다양한 매체의 사진, 동영상 등 인터넷 특성을 활용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8년 10월 20일 현재, 대표이사, 감사 및 이사회 아래 IT센터, 미디어센터를 비롯 총 7개 센터 18팀 1개의 연구소로 99명이 근무하고 있다.

기존의 콘텐츠에 ‘현장 동영상 중계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강화’ 하고 ‘통합뉴스센터를 강화해 속보기능을 향상’ 시키고 ‘주간 뉴스브리핑 등 정규 편성 영상 서비스와 ‘Global Network, WNE 국제 뉴스 동영상을 강화’ 해 “읽는 뉴스에서 보고 듣는 뉴스” 로 가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1 지형은 연판을 뜨기 위해서 식자한 활판 위에 축축한 종이를 올려 놓고, 무거운 물건으로 눌러 이 종이에 활자의 자국이 나타나게 한 것이다.

발전전략

동아닷컴은 콘텐츠 강화, 동영상 확대, 다양한 웹서비스, 뉴미디어 이렇게 네 부문에서 핵심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

콘텐츠 강화 부문은 스포츠동아를 창간하고 온-오프 라인을 연계해 스포츠와 연예 콘텐츠를 강화하는 것과 DBR/로이터 경제뉴스 등 고급 경제뉴스를 서비스하는 것, 아사히닷컴, 인민망과의 제휴 등이다.

동영상 확대 부문은 WNS, 위성 CATV 및 무선 인터넷을 이용해 국내 주요 현장과 지구촌 현장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것, 편집국과 협의한 주간 뉴스 라운드 업, 취재/객원기자의 영상기사 수를 확대하고 동아닷컴의 취재 인력과 장비를 확대하는 것이다.

웹 서비스를 다양화하는 방안은 전문기자 사이트와 블로그 서비스 구축, 밀리터리 서비스 개설, 지방자치단체 포털 서비스 개발 등이다.

뉴미디어 부문은 지면 PDF와 동영상을 결합한 IPTV 서비스 추진, 일본 모바일 콘텐츠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진출 본격화, 모바일차이나·모바일유니콘 등 중국 통신사 모바일서비스 추진, 동아일보 와이브로폰 등 콘텐츠와 디바이스를 결합한 상품 개발 등이다.

주요 서비스

동아닷컴 뉴스서비스	동아닷컴 뉴스	
	영상 서비스	동아 eTV 서비스 로이터 영상 서비스 24시간 국제방송 서비스(비비씨, 블룸버그, 에이비시 등)
	기타 서비스	매거진 서비스 블로그 서비스 디지털 스토리 외국어 서비스 뉴스 음성 서비스
주요 사이트 운영	스포츠동아 도깨비뉴스 MLBPARK 게임동아	



읽을 책

Recommended Reading

ONE PAGE PROJECT



지은이는 클라크 A. 캠벨(Clarck A. Campbell), <빌게이츠@생각의 속도>, <포지셔닝>, <괴짜 경제학> 등 경제서 번역 전문가로 유명한 인트랜스번역원 안진환 원장이 번역했다.

지은이는 유타대학교에서 화공학을 전공하고 MBA를 취득한 후 뒤퐁사와 태너사의 전문이사로 재직했다.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업무의 진척도와 성과를 한눈에 파악하기 위해 '1 페이지 프로젝트 매니저(OPPM, One Page Project Manager)'를 창안하였다. 이 OPPM과 사용 실례를 설명하는 것이 책의 주요 내용이다.

지은이는 “모든 프로젝트는 다섯 가지 필수요소를 지닌다”고 한다. 필수요소 다섯 가지는 과업, 목표, 일정, 비용, 담당자인데 바꿔 말하면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언제까지, 얼마의 비용으로 끝마쳐야 하는가”라고 할 수 있다.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참여자 모두 주인의식을 가져야 하고 감성과 지성을 모두 갖춰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감성. “해당 분야를 완전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프로젝트의 비전을 이해하고 프로젝트에 전념하기 위해 필요하며, 책임소재를 문서화하고 공개함으로써 이해와 전념을 극대화할 수 있다. 동료들과 최고경영진, 그리고 여타 사람들이 자신의 주인의식을 숙지하고 있음을 알게 될 때, 프로젝트에 대한 담당자의 정서적 관여도는 더욱 깊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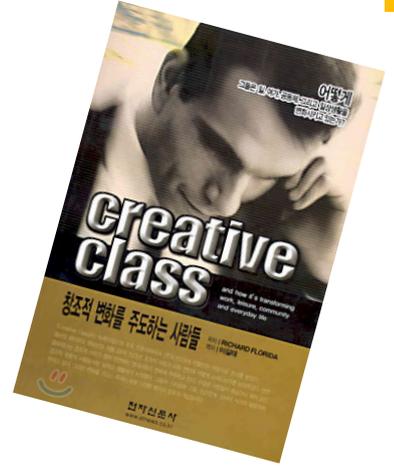
지성. “OPPM은 주인의식과 프로젝트의 목표 및 매트릭스 사이의 명확한 연결고리를 제시한다. 프로젝트 관리에서 지성의 역할은 참여자들이 무엇을 담당하고 목표의 성취 여부가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보여 주는 것이다.”

지은이는 OPPM을 ‘미수금 감축 프로젝트’, ‘ERP’ 등 여러 업무에 실제 적용해 많은 도움을 얻었으며 다양한 프로젝트와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 OPPM의 정체가 궁금하신 분은 www.onepageprojectmanager.com을 방문해 보시길…….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번역본 제목은 <창조적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들>이다. 지은이는 카네기 멜론 대학 경제개발학 교수 리차드 플로리다(Richard Florida)이다. 이 책은 출간 당시에 뉴욕타임스와 주요 언론에서 윌리엄 화이트의 <조직인간>에 견줄 만한 작품이란 찬사를 받았다고 한다.

지은이가 서문에서 얘기하듯 이 책은 새로운 사회계급으로 등장한 '크리에이티브 클래스'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미국 노동인구의 30%에 해당하는 3800만명이 미국의 창조적 계급을 이루고 있고 이들은 일을 하는 방식이나 가치관, 욕구, 일상생활의 구조에 깊고 심각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계속될 것이라고 한다. 방대한 분량의 참고·조사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Irrationality

'r'로 시작하는 단어가 많을까? 아니면 'r'이 세 번째 나오는 단어가 많을까? 'k'로 시작하는 단어가 많을까? 아니면 'k'가 세 번째 나오는 단어가 많을까?

1982년 두 명의 심리학자들이 리빙링 트릭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이름있는 심리학 저널 12개에 권위있는 연구자들이 발표했던 논문을 한 편씩 골랐다. 그리고 저자의 이름과 소속을 수정한 후 해당 논문이 발표된 원래 학술지에 다시 제출했다. 제출한 논문이 이미 발표되었던 것을 안 곳은, 또 발표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거절한 곳은 몇 곳이나 될까?

비합리적인 믿음과 행동은 일상적으로 발생한다. 다양한 집단, 이성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난다.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지를 흥미로운 사례와 함께 다루고 있다. 영국의 대표적인 실험 심리학자 스튜어트 서덜랜드(Stuart Sutherland)가 지었다. "문명의 진보와 정신의 계발을 이루어내려면 전 세계 호텔 객실에 성서가 아니라 바로 이 책을 비치해 놓아야 한다." <가디언>의 서평이다.

